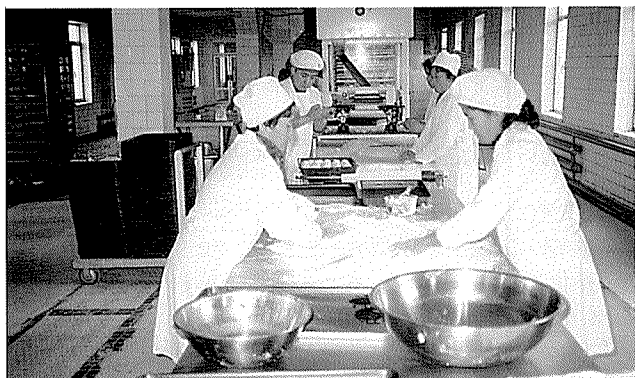


한민족 한마음 하나의 빵

고려당 평양 제빵공장 지원

■ 정리 / 정한상 Jeong@mbakery.co.kr



▲ 공장에서 제빵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 최신 로타리 오븐을 설치해 대량 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00년 11월 17일 공장에서 소보로 빵이 최초로 나오고 있다 (왼쪽 북측 기사장, 오른쪽 고려당 신동성 차장).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를 견고히 하고 한 민족이라는 일체감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고려당(대표 김지정)이 평양에 제빵공장을 지원해 화제가 되고 있다. 민족애에 기초해 어린이 돕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고려당의 활동은 북한의 광명성총회사와 2000년 9월 22일 체결한 합의서가 이번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평양시 중구역 동성동에 위치한 평양남새가공공장은 1,500㎡ 규모로 고려당은 제빵설비(미화 25만 달러 분)를 제공하고 설비조립을 위해 고려당과 평양남새가공공장이 협력해 2000년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고려당은 대표이사과 기술진 5명이 방북해 그동안 설비노후와 원부자재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평양남새가공공장을 새로운 제빵공장으로 탄생시켰다.

이 공장은 평양시 탁아소 20곳과 유치원 18곳의 급식용 빵 공급을 담당한다. 북한 어린이 돕기사업의 일환인 어린이 급식빵 생산은 한민족복지재단과 동아일보사가 후원하고 평양남새가공공장과 고려당이 생산을 맡았다. 방북 기술진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1차 설비팀은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2차 기술지도팀은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민족화합의 역사를 이룩했다. 고려당은 평양남새가공공장의 제빵설비 설치 및 생산을 위해 이완재 생산부장, 조태환 공무부장, 김용정 설계차장, 이승환 전기주임 이외에 북경고려당의 신동성 제빵차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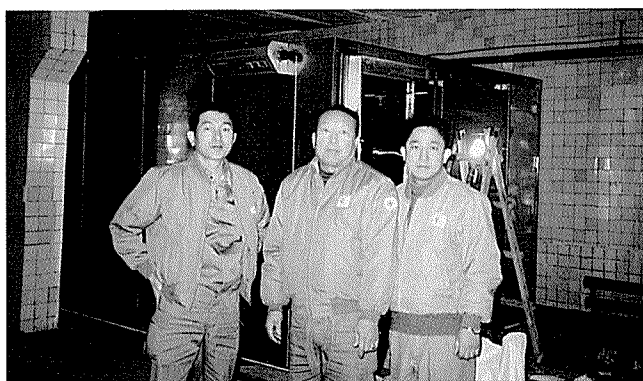
▼ 평양남새기공공장 기사장이 버터를 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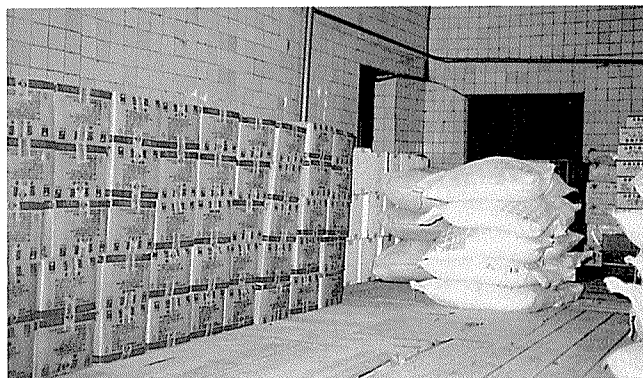
현지에 투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

기술진은 공장의 발효실 조립공사 및 설비 설치 작업 후 11월 17일 처음으로 빵을 시험 생산했다. 또한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시험생산과 동시에 제빵기술을 전수하는 일련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돌아왔다.

고려당 기술진은 북한의 경색된 작업 분위기를 부르럽게 전환하려고 “여성은 꽃이라네”, “고향의 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백두에서 한라까지” 등의 노래를 합창했다. 고려당 생산부장인 이완재씨는 “일을 하면서 이념적인 갈등은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일하며 기계에 묻은 밀가루와 떨어지는 덧 가루를 종이에 모아 다시 이용하는 그들의 알뜰함과 작



▲ 고려당 기술진(왼쪽부터 김용정 차장, 조태환 부장, 신동성 차장).



▲ 잘 정돈된 자재창고.

업과정의 청결함에 감동했습니다. 마지막 포장작업을 종료하고 이별노래를 부를 때 서로 울면서 악수하고 작업자 20명이 눈물을 흘리며 배웅해 가슴 뭉클한 마음을 느끼며 한 핏줄로서의 동포애를 느꼈습니다”라고 전했다.

고려당은 2001년 1월 9일에도 기계설비와 케이크 생산 기술자 각각 2명씩을 평양으로 파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민족화합 차원에서 꾸준한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Interview



김지정 / 고려당 대표이사

북한에 제빵공장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민족애에 기초해 북경 고려당을 통해 북한에 빵을 공급했었다. 중국 북경에서 평양까지는 2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반 및 유통기한 등에 제약 조건이 있었다. 따라서 평양 현지 생산을 할 경우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어 광명성총회사와 공장운영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됐다.

향후 북한과의 교류는 어떻게 예상하는가.

앞으로 대내외적 요건이 성숙되면 북한과의 합자회사 설립 등 좀더 활발한 경제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민족화합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에 동참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